

전북여성화요간담회 20주년...여성연대 미래 모색

포럼서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 공유
여성리더·전문가 100여명 참석
청년 여성리더 육성 필요성 공감

전북도는 9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에서 '전북여성화요간담회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여성정책 발전과 여성 연대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 2006년 창립된 지역 여성리더 네트워크로, 150여 명의 회원이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실천 활동을 펼치며 전북 여성계의 대표적인 연대 조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날 포럼에는 화요간담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함께한 20년, 이어갈 연대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여성 연대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 리더십과 여성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 여성정책 전문가와 언론계,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지역 소멸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네트워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청년 여성리더 육성과 세대 간 연대 확대, 정책 제안 기능 강화 등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전북도>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20년 동안 여성리더들의 소통과 연대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은 지역 여성정책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공공갈등 예방 협력체계 구축

전북대 연구소와 협약 체결
영향평가진단 분석 지원 강화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9일 전북대 부설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소장 하동현)와 함께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연 구·자문 협력 ▲갈등영향평가 및 진 단·분석 지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훈련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사업을 본격 추



<사진=전북개발공사>

진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곧 지역 상생의 밑거름"이라며 "연구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정철 기자

제12대 전북도의회 "유종의 미" 마지막 회기 개최

오늘 제428회 임시회 개최
추경안·조례안 등 24건 심사
19일 본회의서 안전 최종 의결



문승우 의장

경정예산안 및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24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국립공원 보존에 따른 지

역회생 보상 및 국가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또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제2

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의 의안 및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이에 대해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난 4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청·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정철 기자

전북도 숙련기술인 발굴...명장 접수 시작

내달 7일까지 신청서 접수
명장 증서 기술장려금 지급

전북도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 서류 접수를 오는 7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은 도내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영예로, 분야별 1명, 연간 총 3명 이내로 선발된다. 현재까지 총 10명의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이 배출됐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명장 증서와 명

패가 수여되며, 총 1,500만 원(연 300만 원 × 5년)의 기술장려금이 지급된다. 도는 명장 제도가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기술의 전승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장 선정 대상 분야는 공예, 건축 등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으로, 선정자는 공고일(26.4.9.) 기준 ▲동일 직종 15년 이상 종사 ▲도내 주민등록 3년 이상 유지 ▲지역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정철 기자

정청래,李大통령 출국행사 불참 "靑서 오지마라 통보" 해석 분분

대통령 "이길곳 지면 성공 아냐"
지방선거 평가 연관성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열흘간의 유럽 순방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순방에 나섰다.

이대통령 환송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인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관계국 대사들이 나와 배웅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행사 때 환송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해왔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어수선하니 당에서 굳이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청와대 쪽에선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서훈시장 선거에서 패하는 등으로 '반쪽 승리'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길 곳을 졌다"며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승리 입장에 썩기를 박았다.

한편, 민주당은 8월 17일 정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계정이며, 당대표 후보엔 정청래 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다음주 가동"

이번 주 조사계획서 본회의 보고
"국힘 너무 속 보여" 질타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가 다음 주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번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최단기간 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



한병도 원내대표

고로 선거관리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무너뜨렸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검정은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며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즉각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 개혁 TF를 조속히 설치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

김영진 "정청래 8월 정당대회서 심판받을 것"

친명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정청래 대표, 8월 정당대회 때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원조친명 '7인회' 멤버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최종 결정권자였던 정청래 대표의 공과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를 준비하면서 초창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나"라면서 "선거 결과를 15대 1로 예측하고 캠페인과 전략을 짰지만 노력이

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재선거와 국정조사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등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국민의

총분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탕크데이, 15대 1, 이런 어휘들이 앞서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과도한 권력 쏠림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 책임'에 관련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손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지는 않거나, 너무 속이 보이지 않느냐"고 국힘을 질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4가지 안전 수칙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교통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규정속도 준수로 과속하지 않기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출발 전 안전띠 매는 습관 들이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전주시 감나무골 등 주요 사업장 연내 준공

연내 약 2800여 세대 준공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 나서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과 금암동 주상복합, 송천동 에코시티 16블럭 공동주택 등 주요 공동주택 건설사업들이 연내 준공되면 약

2800세대 규모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시는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힘써 왔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장 간담회 등 현장 행정과 소통 행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통합심의 운영과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왔다. 그 결과 서신동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자 1914세대 대단지를 조성하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금암광장 인근 315세대 금암동 주상복합 임대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고

에코시티 내 마지막 일반분양 단지인 16블럭을 통해 576세대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노쇼 사기 이용 '불법 중계기' 관리책 4명 검거

휴대전화 303대 등 압수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노쇼 사기 해의 콜센터에서 발신한 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조해주는 일명 '중계기'가 설치된 원룸 4곳을 적발해 중계기 관리책 4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적용법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3년 ↓ 징역, 1억5,000만원 ↓ 벌금)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전북 지역 원룸 4곳을 임대한 후 휴대전화 303대, 라우터 8대, 유심 1969개 등 대규모 통신장비를 설치해 중계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노쇼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경찰은 원룸 밀집지역 주변에서 불법 중계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 불법중계기가 운영되고 있는 원룸 4곳을 급습하여 관리책을 잇달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유심을 전량 압수했다. 조사결과에서 피의자들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작동시켜 유심을 교체하는 일만 해주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5건의 노쇼 사기(피해액 약 1억4000만원)가 이들이 관리한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당부사항으로 "노쇼 사기조직은 중계기를 통해 번호를 변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사 '010'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화나 문자 또는 공공기관, 군부대, 대기업 명의의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선입금 또는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중계기 관리의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피싱 조직의 핵심 공범으로 간주하고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을 지시하고 통상장비를 공급한 배후 세력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집중호우 안전관리 강화

우 시장, 9일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전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한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전주시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해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우 시장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집

중호우 시 침수 피해와 저수지 제방 안전사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했다. 이어 함께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우기 대비 현장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평화동 일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72억원의 사업비를 투

입해 신성공원 우수저류조와 학소제 우수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어 완산구 중인동 농업용 저수지인 갈마제를 방문해 우기 대비 시설물 관리 상태와 사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집중호우 시 저수지 주변 안전관리와 주민 대피 계획, 상황 전파 체계 등 현장 대응 전반을 확

인하며, 선제적 안전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예방사업장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2026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 개최

6월 13일 노송광장서 개최
즐길거리 가득 시민 참여형 장터

전주시 '2026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개최된다. '시민장터'는 전주시민 그리고 관광객 및 온가족과 더불어 연인 등 전주시에 있는 모두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장터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가



지 전주 노송광장에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소통 및 교류 중심의 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시는 '가족탐정단: 미스터리 마켓' 주제로 한 판매 장터와 체험장, 놀이, 공연 및 이벤트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터에는 총 15개 부스 △핸드메이드 소품 △각종 문구류 △수공예 굿즈 △구움과자 △습사탕 △음료 등 남녀노소 누

구나 즐기는 간단한 간식이 펼쳐진다. 또한 가족 또는 친구 참여형 △팀대항 추리게임 △방탈출 성공 미션 △딱지치기 △과녁 맞추기 게임 △세대별 놀이존 등 예술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운영된다. 여기에 시는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불펜 만들기 △천연 아로마 향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아동·여성 안심한 사회 안전망 강화

민관 협력체계 고도화
지역연대 회의 개최

전주시가 아동과 여성이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에 시는 9일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여성권익시설 관계자 등 아동·여성 보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지난해 추진된 지역연대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과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전주시는 9일 '2026년 전주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전주시-전주연탄은행-여성권익시설 업무협약(MOU)' 체결이 손꼽혔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경찰과 상담소가 상호 협력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경찰-가정폭력상담소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공동 모니터링' 운영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시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성폭력·스토킹·성매매 예방 교육 사업'을 적극 홍보하며 여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위험물 운송차량 일제조사 착수

이동탱크저장소 1378개소 조사

이동탱크저장소 1378개소 조사 우려가 크다. 이소속 전북소방본부장의 이번 조사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등 허가자료를 비교한 뒤 소유자나 상치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대상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확인사항은 △소유자 불일치 △차량 말소 △수출탈소 △폐차 △상수차나 일반화물차로의 구조 변경 △상치장소 부적합 등이다. 조사 결과 허가사항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시위승계 △용도변경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관서 허가정보와 실제 운행 상태가 달라진다.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물 운송차량은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안전조치가 어려워 도로 위 안전관리 빈틈으로 이어질

다. 이번 조사는 소방관서 허가정보와 실제 운행 상태가 달라진다.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물 운송차량은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안전조치가 어려워 도로 위 안전관리 빈틈으로 이어질

전북환경청 장마철 비점오염 저감 총력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달 중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비점오염저감사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앞서 옥정호와 용담호 등 광역 상수원 지역과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국지성 집중호우시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장마 시작 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보전원,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참여해 인공습지

조성사업, 고령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그린빗물인프라 등의 전문적인 시설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현장중심 기술지원도 병행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하여 수질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희망·행복콘서트 공연 선사

전북대학교병원이 '2026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음악을 통한 치유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에는 종근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콘서트를 통해 투병 중인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며 병원을 찾은 이들에게는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연에는 인기 팝페라그룹 '카르디오' 공연과 함께 소프라노 한아름, 테너 김재민, 뮤지컬배우 박시인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오페라와 뮤지컬, 영화 OST 등 대중에게 친숙한 음악을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선율은 300여명 관객참여자와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아울러 의료진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했다. /김영태 기자

AI 코딩 '테스트 가능한 코드' 품질기술교육 운영

전북ICT-SW 기업 재직자대학생 대상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9일 전북 지역 ICT-SW기업 재직자와 IT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AI시대 유지보수 쉬운 코드 작성 품질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북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인재들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9일 전북 지역 ICT-SW기업 재직자와 IT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AI시대 유지보수 쉬운 코드 작성 품질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북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인재들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총 4시간 과정 △테스트 용이성과 설계 품질 관계 분석 △테스트 가능한 코드 구조 비교 △AI 기반 개발 환경에서의 리팩터링 비용 분석 등 현업 적용성을 높인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희원은 지역 ICT-SW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향군-더나은마디의원 의료 지원 협약 체결

전주시재향군인회 회원 위한 특별 서비스 지원 협약이 체결됐다. 전주시재향군인회 김병준 회장과 더나은마디의원 김현송 원장은 9일 완산구 용마리로 32 소재 병원에서 9일 최고·최상 특별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비보험(비급여) 진료비 20%-50% 할인 등 특별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 통

한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았다. 전주시재향군인회 김병준 회장과 더나은마디의원 김현송 대표원장은 "전주시재향군인회 조직을 통해 더나은마디의원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상호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산학연 협동프로그램 기술고도화' 지원

대학·연구소 장비 및 기술역량 연계·지원... 15일까지 모집

전북TP가 '산학연 협동프로그램 기술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2차)' 일환으로 추진된다.

다불어 전북TP와 대학·연구소 장비와 기술역량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특수목적 모빌리티와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총 25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유형은 △공동설계형 △기술강화형으로 구분된다. 공동설계형은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기술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15개사가 지원된다. 기술강화형은 시제품 제작, 시험·인

증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1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특히 공동설계형은 기업 기술애로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는 Co-design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술자문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R&D 및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또 참여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대학교가 보유한 △3D 프린터 △X선 3D 스캐너 △전자현미경 등 다양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전북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md.jbtp.or.kr)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선정평가는 서류검토와 발표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선정기업은 6월 말 협약 체결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NH농협생명 전북총국, 어린이 맞춤형 수업

'경제·금융교실' 진행 모두례는 '모두'와 '두레'의 합성어로 협동조합 정신과 생명보험의 상부상조 이념이 결합된 명칭이다. 농협생명 임직원이 강사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1교 프로그래밍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두레 - 1사1교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진행했다. 교육은 돈의 개념과 역할, 저축과 보험, 용돈기입장 등 금융 상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또 예·적금의 이해와 기초 보험 개념을 다루는 등 고학년 수준에 맞는 교안과 교구를 통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다. /정소민 기자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 '서울푸드 2026' 개막

농식품부 6.5억불 규모 수출 상담 진행

국내외 식품 트렌드와 기술 등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아시아 대표 식품 박람회 '202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 2026')' 막이 올랐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9일~12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서울푸드 2026' 행사는 국내 최대 식

품 전시회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 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288개 해외기업과 역대 최대규모 49개국, 1800개 식품기업이 참여한다. 사전 집계한 수출 상담 규모도 전년에 비해 약 160% 증가한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회 이외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10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 & 테크 컨퍼런스'가 열린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푸드 컨버전스 시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먹거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0회 서울푸드 어워즈'를 통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체육, 기호식품, 푸드테크 등 20개 생산 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별도 홍보관을 구성해 우수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러브 푸드(LOVE FOOD)'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은 독립 250주년을 맞아 2026년 개최되는 해외 식품 전시회 중 유일하게 '서울푸드 2026' 행사에 주빈국 자격으로 참가했다. 총 82개 부스로 꾸며지는 미국관에

서는 육류와 최신 유행 스낵, 견과류부터 친환경 스페셜티 원료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 식품기업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K-푸드 방한 구매단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카타르, 칠레, 라오스 등 신시장 10개 전략국가 바이어를 초청해 김치, 장류, 전통주 등 전략품목을 소개하고 업무협약 및 계약 체결 등 신규 판로를 개척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경진원, 돈움·도약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신규 지정 29개사 성장사다리 지원 안내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9일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된 돈움·도약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신규 선정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는 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운영 방향을 비롯해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단계별 지원사업, 운영지침,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방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2010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돈움기업 육성사업을 발굴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표 기업 육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돈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혁신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5단계 성장체계로 운영되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기업 모집에는 돈움기업 94개사, 도약기업 83개사 총 177개사가 신청했으며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 ▶종합심사를 거쳐 돈움기업 17개

사와 도약기업 12개사 총 29개사가 선정됐다. 현재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돈움기업 57개사(신규 11개사 포함), 도약기업 41개사(신규 12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에는 성장사다리 참여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 혁신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KESCO-포스코이앤씨, 전기안전사고 예방 협력

사공품질 향상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기술이사 김성주)와 포스코이앤씨(건축사업본부장 박종진)가 건설현장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사공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9일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에서 김성주 기술이사와 박종진 건축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사공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기안전공사의 전문 기술력과

포스코이앤씨의 사공 역량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전기안전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토목(초기), 골조(중기), 사용승인(준공) 등 시공 단계별 맞춤형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현장별 전기설비 안전 수준을 등급화해 관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술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가설 설계도면의 전기 안전성 검토 및 위험요소 사전 진단 기술 지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내 가설 전기공사 업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전기 안전신문인증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주 기술이사는 "민간 건설 분야를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선도하는 포스코이앤씨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건설현장 전기안전 관리 수준을 한

전북TP 노동조합 "이원택 도지사 당선 환영"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전북 산업정책의 핵심 실행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과 수소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농생명바이오 산업, 방위산업 등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산업지역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의 핵심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조합은 새 도정에 △공공기관 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구성원의 참여 제도적 보장 △통합 및 조직개편의 필요성·기대효과·재정효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 공개 △전북테크노파크의 산업지원 전문성과 기업지원 기능 유지 △구조개편 과정에서 고용안정성과 국가사업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5가지를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역산업 발전과 도민의 이익,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9기 도정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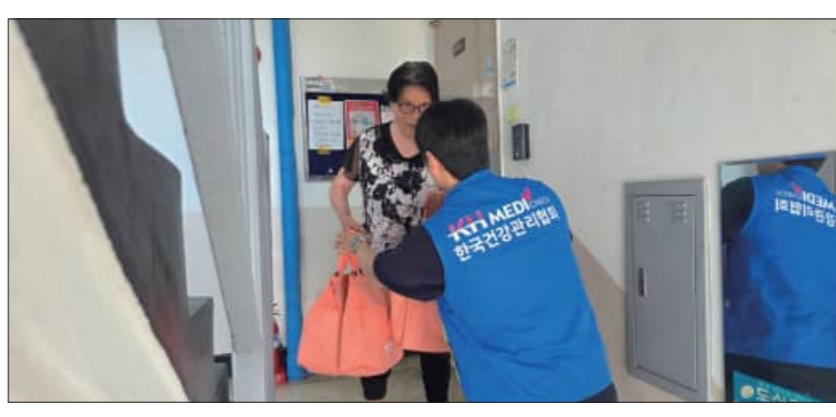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5천명 최종 선발

세대 아우르는 창업 열기

중기부는 6만3천명의 역대급 도전자가 몰렸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평가 결과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우수한 창업인재 5천명(일반·기술 트랙 4천명, 로컬 트랙 1천명)을 최종 선발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와 경력 지역 관계없이 전국 곳곳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체 5천명의 선정자 중 30세 이하 청년층 선정자가 전체 68.4%를 차지하며

발'을 제안했다. 로컬 트랙의 17세 최연소 선정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기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안했고, 72세 최연장 선정자는 '경북 못난이 사과 업사이클(재활용)에 기반한 물 없이 녹는 K-사과 에너지 분말스틱 개발'을 제안했다. 외국인 선정자는 일본인 창업자의 시각으로 '일본인 관광객 대상 부산 여행 정보 플랫폼 개발'을 제안했다. 한편 지역 선정자는 전체 74%였으며 트랙별로 일반·기술 트랙은 70%, 로컬 트랙은 90%의 지역 도전자를 선정하며,

전국 각지의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오프라인 제도전 멘토링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주중 참여가 어려운 도전자를 고려해 주말 포함 총 40회 운영될 예정이다. 온라인 제도전 멘토링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도전자들은 원하는 멘토를 선택해 1:1 온라인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멘토링은 총 3회 제공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간협 전북지부>

간협 전북지부 '사랑의 음식 전달'

간협 전북지부는 9일 지역 사회복지사와 연계 홀로 계신 어르신 위한 '초여름 맞이 밀반찬 배달 봉사'를 펼쳤다. 활동은 환절기 기력 저하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 식당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봉사에 참여한 간협 전북지부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계절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안전사고 예보제' 시행

최근 5년 사고 데이터 분석... 위험 시기 및 유형 사전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선제 예방을 지원하는 '2026년 학생안전사고 발생 예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예보제는 최근 5년간 축적된 학교 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월별·학교급별·지역별 사고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기와 유형을 각 학교

에 안내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 후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측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도 지원한다.

실제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2분기(6-8월)의 평균 사고율은 직전 분기 대비 유지율 4.2%, 초등학교 2.7%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분기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학교 현장 중점 관리사항 △학생 대상 안전교육 자료 등을 학교에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예보제를 통해 학교가 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진=전북교육청>
이러 "빅데이터 기반 안전 정책을 확
대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전주 전시회 연다

대통령상 수상작 등 총 47점 선봬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하는 '제29회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전주 한옥마을 전주공예품전시관(전시1·2관)에서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1997년 시작돼 국내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본 대전은, 올해 최고상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며 공

모전의 위상과 격을 한층 더 높였다. 해마다 전국 공예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규모와 수준이 향상되며,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 발굴과 함께 신진작가의 든든한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본 대전은 전통 옷칠 목공예 분야와 더불어, 한국 고유의 목기 제작 기술인 '같이 공예' 분야를 각각 나눠 매년 진행해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고유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독보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회차를 거듭할수록 전통적 기법의 깊이를 더해가는 동시에 현대적

인 감각과 디자인을 과감하게 접목한 작품들이 꾸준히 발굴되면서 옷칠 목공예의 미래지향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남진우 작가의 '나전 흥배 국화문 의복함'을 비롯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47점의 품격있는 수상작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남원을 상징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예문화인 '옷칠 목공예'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원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옷칠 목공예의 가치 확산과 창작 기반 강화를 위해 '남원현대옷칠 목공예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을 통해 귀속된 우수한 수상작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할 본 공예관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옷칠 목공예의 대중화와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정읍단풍미인컵 궁도대회 '성료'

1282명 명궁 기량 겨뤘

정읍 필야장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궁사 1282명이 참가해 전통 무예인 활쏘기 기량을 겨루는 제59회 정읍단풍미인컵 전국남녀궁도대회가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 궁도협회가 주최하고 정읍 필야장이 주관했다.

3일간 이어진 행사에 단체전 93팀(465명)과 개인전 817명 등 총 1282명이 출전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경기 결과 단체전 우승은 대전 대동정이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고창 모양정 이종민(장년부), 남원 관덕정 이종규(노년부), 순창 육일정 김은미(여자부), 군산 진남정 박정수(실업부) 선수가 각각 부문별 1위에



<사진=정읍시>
올랐다.
단체전은 1차 기록 경기로 16강을 추린 뒤 승자 진출전(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승자를 정했다.
경기력도 우수해 15발을 쏘 모두 명중시키는 '15시 15중' 달성자가 장년부 5명, 여자부 2명, 실업부 1명 등 총 8명이 나왔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교육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예선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6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도예선'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예선에는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과 일반학급 학생 121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e스포츠 6개 종목과 △정보경진대회 8개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도 예선 및 지역대회를 통과한 전북 대표 학생들은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각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전국 본선에 출전한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실생활 정보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 예선부터 전국대회 본선까지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원스포츠단 김혜랑 선수, 국대 선발

압도적 경기력 뽐내

전북원스포츠단 철인 3종팀 김혜랑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양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전 2·3차전' 결과 원스포츠단 김혜랑이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번 선발전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각 차수별 성적에 따른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경기는 수영(0.3km)과 사이클(6.67km), 달리기(1.75km)의 슈퍼스프린트 방식으로 진행됐고, 선수들은 국가대표 티켓을 놓고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다.

1차전에서 2위를 차지한 김혜랑



김혜랑 선수

은 2차전에서도 2위를 마지막 3차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특히 3차전에서는 1·2차전 우승자를 상대로 약 15초 차의 격차를 벌리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냈다.

이처럼 안정적인 경기력과 집중력을 입증한 김혜랑은 여자부 대표선수 1번으로 선발, 아시안게임에 당당히 출전하게 됐다.

전북원스포츠단 철인3종 여자팀 김대성 감독은 "지금도 뛰어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내달 16일 기획연주회 공연

군산시립교향악단이 내달 16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2회 기획연주회 'Inside the Orchestra'를 개최한다.

공연은 이명근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클래식과 영화음악 등 대중에게 친숙한 작품들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상급 성악가들이 협연자로 참여해 무대의 품격을 더한다.

바리톤 이혁은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푸치니 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외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입상한 성악가로, 이번 공연에서는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능 해결사'를

선보이며 특유의 힘 있는 가창력을 들려줄 예정이다.

소프라노 김민형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번 공연에서 뮤지컬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대표곡 '밤새도록 춤출 수 있다면(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현자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친숙한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임근석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생생리뷰단 발대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일 '2026 생생리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재단 관계자 외에도 리뷰단에 선정된 도민 20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위촉장 수여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안내 △리뷰단 활동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실시했다.

리뷰단은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전북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즐기며 느낀 생생한

감동과 관람 포인트들은 사진, 영상, 글 등의 콘텐츠로 도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생생리뷰단의 활약을 통해 훌륭한 지역 문화예술이 도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도민 주도의 소통을 통해 전북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지원팀(063-230-7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단 한 번의 클릭도 범죄입니다





‘정읍시장배 골프대회’ 성료 초급자·중급자 모두 즐겨

정읍시 후원으로 정읍시골프협회가 주최한 ‘제17회 정읍시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8일 내장산 골프장에서 초보자와 중급자 모두 즐길 수 있는 경기 방식으로 열려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대회는 골프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다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꾸러졌다.

이를 위해 대회 성적은 참가자의 실력 차이를 일정 부분 보완해 핸디캡을 산출하는 신페리오(숨겨진 홀에 임의의 기준 타수를 지정하는 방식) 제도를 적용했다.

오후 경기는 참석자들이 기다림 없이 원활하게 경기를 이어가도록 샷진(전체 홀동시 출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변화는 동호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초보자와 중급자에게도 입상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면서 대회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시 관계자는 “골프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이지만 아직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시민들도 많다”며 “이번 대회처럼 입문자들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운영 방식을 점차 넓혀 골프가 더욱 친근하게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교육…안전관리 역량 강화

군산시는 9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발주공사 관계 공무원과 계약업체, 감리자, 건축사 및 건설업 관련 협회 회원 등 건설공사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주요 사고를 예방하고, 우기철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정찬호 감독관을 초빙해 진행됐으며, △건설공사 발주 담당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사항 △우기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근로자 보호조치 △주요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이 발주공사 담당자와 계약업체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걷기챌린지’ 운영

익산시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나섰다.

익산시보건소는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치아튼튼! 건강튼튼! 걷기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챌린지 기간은 목표 걸음 수는 총 9만 보이며, 하루 최대 인정 걸음 수는 6,900보로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워크 앱을 설치한 뒤 ‘익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휴대 전화를 소지한 채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후 응모하기를 신청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건강증진실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이 이번 챌린지에 참여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인수TF팀 가동

당선인 ‘총괄팀장’ 맡아 실무 중심 시정 인수 직접 지휘



김재준 당선인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일반적인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실무 중심의 일하는 시정 인수를 위한 ‘민선 9기 인수TF팀’을 구성했다. 인수TF팀은 오늘 군산컨텐츠팩토리(군산시 해방로 146-24)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TF팀은 당선인이 직접 ‘총괄팀장’을 맡아 현안을 진두지휘하는 과격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고 오직 시정 인수와 미래 비전 수립에만 집중하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실용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번 인수TF팀 운영은 대규모 인수위원회 운영 시 수반되는 예비비 편성 등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예산 절감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시정 인수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당선인 철학에 기초했다.

인수TF팀은 철저히 실무형으로 구성했다. 별도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직함 없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김봉근 전 군산시 문화관광국장이 ‘간사’를 맡아 공식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및

신속한 시정 파악을 조율하게 된다. 분과 조직은 △혁신행정 △경제산업, △문화관광 △시민복지 △안전건설 등 총 5개의 팀으로 구성해 시정 인수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각 팀의 팀장은 대학교수 등 분야별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로 전격 배치해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부서별 업무에 정교하게 반영하는 등 민선 9기의 출범과 관련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TF팀의 실무 기능을 뒷받침하고, 군산시의 장기적 비전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재준 당선인은 “민선 9기 군산시정은 출범 첫날부터 공백 없이 일하기 위해 형식적인 인수위 대신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인수TF팀을 선택한 것”이라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민선 9기 인수TF팀’ 명단이다. **■인수 총괄팀장**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인수 총괄간사** △김봉근(군산시 전 문화관광국장,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 교수) **■혁신행정분과** △팀장 양해면(호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보조금 심의위원) △이연화(군산시의회 의원) △최일진(농협근무(예산·회계)) **■경제산업분과** △팀장 박재필(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조상만(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송상호(노동계, 민주노동) **■문화관광분과** △팀장 최부현(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교수) △박양기(전 시민예술총장) △김찬우(군산청년조합 커뮤니티센터 대표) **■시민복지분과** △팀장 윤진주(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권혁주(장애인·복지 전문가) △오주영(군산시자활복지센터장) **■안전건설분과** △팀장 이성관(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통토목안전 교수) △강동일((사)대학안전조사자협회 소방청 심의위원, 전 소방서장) △김춘식(시민사회 활동) **■정책자문단** △문화관광 분야 김원태(전 경실련 대표, 목사) △경제산업청년 분야 채정연(농촌, 청년일자리) △문화관광 분야 송진희(공연예술 등 활동가) △시민복지 분야 송정임(어린이집 원장 22년, 영유아·저출산·시니어 정책전문가) △안전건설 분야 강준(환경 전문가) △안전건설 분야 신길섭(향만 전문가)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전통시장 도심 속 바캉스 명소로”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익산시가 올여름 전통시장을 무대로 먹거리와 공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오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일시장, 구·남부시장, 중앙시장, 서동시장 일원에서 ‘2026 전통시장 릴레이 장터바캉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야시장과 포차축제, 청년몰 행사 등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추진하는 전통시장 연계 축제다. 축제는 시장별 특색을 살린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순서로 오는 12-13일 매일시장에서 ‘2026 매일 패션시장 야시장 페스티벌’이 열려 초청가수 공연과 스트리트댄스, EDM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19-20일에는 구·남부시장에서 ‘이리와 포차 축제’가 개최된다.

중앙시장과 청년몰에서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청년몰 상상포차 야시장’이 펼쳐진다.

장터바캉스의 마지막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서동시장에서 열리는 ‘별별 야시장 in 2026’이 장식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전통시장에는 방문객 유입과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릴레이 장터바캉스는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심에서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농어촌공 군산지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

부실공사 차단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는 9일 지사 회의실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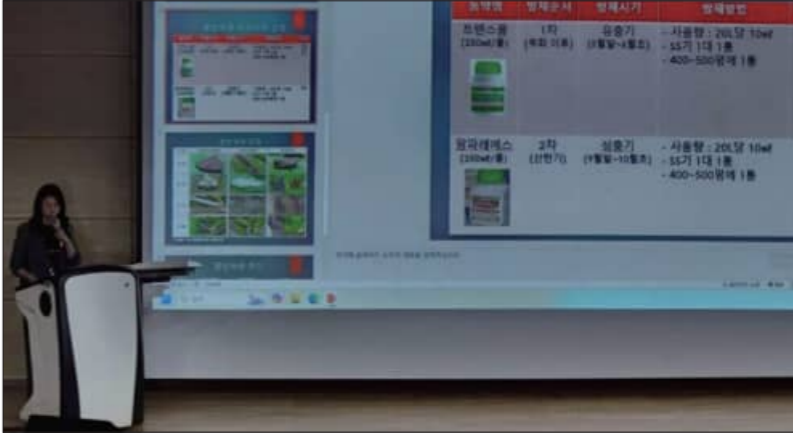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공산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을 수립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연간 품질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중인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감독

과 시공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등 50여명이 참석, 4시간 동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법규 및 지침 △품질관리 관련 주요 시책사항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등의 주제로 진행했다.

서기수 군산지사장은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간 지도점검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사현장의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 농식품, 전국무대에서 우수성 인정

마누렁지서동팜 ‘쌀가공식품산업대전’서 우수상

익산시의 품질향상 지원을 받은 지역 농식품 기업의 제품이 전국 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농협회사법인 유한회사 마누렁지서동팜이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라이스 쇼 어워드(RICE SHOW AWARDS)’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누렁지서동팜은 우리 쌀로 만든 누룽지에 익산의 대표 농산물인 마를 더

해 개발한 ‘마를 품은 누룽지 스낵’을 선보여 전통의 재해석 부문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수상은 익산시가 추진한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는 지난해 마누렁지서동팜을 대상으로 가공사업장 개·보수와 생산설비 확충, 포장재 개선 등을 지원했다. 누룽지 과자 제조기와 포장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균일성을 높였으며, 상품 포장지와 포장 상자 개선을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힘썼다.

그 결과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품질

을 높인 ‘마를 품은 누룽지 스낵’이 전국 단위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시정 현대화와 품질 개선의 성과를 입증했다.

수상 제품은 쌀가공식품산업대전 주제관 특별전시를 비롯해 온라인 전시관 홍보, 국내외 바이어 대상 홍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익산시는 이번 수상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지역 농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유통 질서 확인 온 힘”

정읍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 취급 업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아 누구나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 음식점을 비롯해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대형 마트 등이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품목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뱀장어(민물

장어)와 미꾸라지다. 평소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잦은 살아있는 활참돔, 낙지, 가리비, 수입 물량이 증가한 냉동고등어 등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헛갈리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규정된 표시 방법을 어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러 원산지를 속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분한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만들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어질 때는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읍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며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돌발해충 집중 방제

익산시가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익산시는 6월을 돌발해충 집중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유충기 방제 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방제는 기술보급과 녹색도시 조성, 산림과 협력해 농경지·산림·가로수 등의 돌발해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기후 온난화로 돌발해충의 발생 시기와 개체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주요 해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발해충은 5월 부화 후 10월까지 활동하며, 과실과 잎, 가지의 즙액을 빨아먹어 가지 고사, 상품성 저하, 그을음병 유발 등 심각한 피해를 준다.

시는 농가와 함께 동시다발적 공동방제를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여 농가에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교육도 진행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는 공동방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약제 살포 시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방제일을 고지하는 등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신태인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추진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7억 7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지은 지 39년이 지난 신태인도서관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물로 새롭게 단장한다.

시는 신태인도서관이 ‘2026 공공건축물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대상지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넘는 낡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건물 단위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 효율 창호와 방난방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신태인도서관 건물은 지난 1987년 사용 승인을 받아 신태인보건지소로 운영되다가 2009년에 내부 공사를 거쳐 도서관으로 용도를 바꾼 뒤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세부 계획 수립을 비롯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10월까지 시시설물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나은 도서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새들 숲 놀이공원 준공 ‘눈앞’

고향사랑기금 4억 투입

군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새들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간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단위 공원이 조성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금 4억 원을 투입해 수송동 새들공원 일원에 어린이 숲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일반기부사업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원 명칭은 옛 지명인 신평(新坪) 마을의 순수리말인 ‘새들’을 사용해 친숙함과 지역성을 살리고, 아이들의 즐거움이 커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새들 숲에ON 놀이터’로 정했다.

놀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과 자연 체험이 가능한 놀이시설과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아이와 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길용 기획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기부금이 주민 복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시화해 기부자에게는 자부심을, 주민에게는 애郷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금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양충모 인수위 출범...민선9기 남원 '밀그림'

6개 분과·자문위원단 구성 시장 현안·공약사업 점검 착수 '남원발전·시민행복' 핵심 과제

민선 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장 인수와 미래 비전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최용택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남원시장의 밀그림을 그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시장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하며,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시장 인수 작업에 임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에서 주어진 핵심과제는 남원발전과 시민행복을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남원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핵심공약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남원시>

당선인은 "청년에게는 과감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에게는 안정된 삶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용택)는 시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 6개 분과 위원 15명 및 자문위원 30명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장 주요 현안과 공약 사업을 점검하는 등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성공적인 민선 9기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또한 시민 중심의 시장 구현을 목표로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전략과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원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전략,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유치 방안, 미래산업 육성 방향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순창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문화유산 보호 총력

37개 문화유산·시설물 안전점검 긴급 보수·응급복구 신속 추진

순창군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며, 문화유산 관련 시설물과 건조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장유박물관, 훈몽재, 설공천전테마관, 순창농업공과물소리전수관 등 문화유산 관련 시설물 4개소와 도 지정 및 군 지정 문화유산 등 건조물

문화유산 33개소로 총 37개소이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풍수해가 집중되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시설물 균열, 배수 상태, 붕괴 위험 요소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 조치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복구를 우선 실시한 뒤 예산을 확보해 보수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



<사진=순창군>

고 있는 만큼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동상계곡고종시 상징물 '동상이' 제막

동상면 '마을조형물' 공모 선정 물소리축제 앞두고 관심 높여

완주군 동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경태)가 9일 오후 대아 지구 관광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남만점터에서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 '동상이'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동상면 지역 기관·단체 핵심리더,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형물 설치를 기념하고 지역 발전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 '동상이'는 2025년도에 지속가능한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작한 상징물로 '마을 조형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설치하게 됐다.

동상면의 대표 특산물인 '고종시' 꽃감과 여름 대표 관광지인 계곡을 형상화한 동상은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는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포토존 및 지역 홍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

행사에 참석한 지역핵심 리더와 주민들은 "우리 동상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생겨 뜻깊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특색과 가치를 살려 완주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상면 상인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4회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를 대비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쓰레기 줍기 등 자체 환경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친환경 먹거리 학교 무상급식 '큰 호응'

친환경농산물 만족도 97.4% 경제적 부담 완화 96.7% 평가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먹거리 복지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3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항목에서 96% 이상의 긍정 응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만족도는 97.4%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학생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96%에 달했다.

또한 군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가

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응답은 96.7%로 조사됐으며, 군비 지원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도 96%를 기록했다.

실제로, 순창군은 올해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개교, 2,0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도비 지원 외에도 군비를 추가 확보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비와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내산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쌀 사용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99대 선착순 지원

남원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총 6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총 299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98대, 4등급 경유 191대, 건설기계 10대 등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를 비롯해,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2차 사업은 신청 대수 제한 없이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온라인 접수하거나 남원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1,900만 원 부과

순창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1,988건, 총 1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전자납부서비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순창군청 재무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문자로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소방서·완주라이온스클럽 노후아파트 안전망 강화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전주지구 완주라이온스클럽과 협력해 화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및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인원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다.

완주소방서는 완주라이온스클럽과 함께 2005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아파트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없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아동(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장애인(거주하는 피난취약세대를 우선 선정해 총 62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설치할 예정이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장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생명의 경보기인 만큼, 완주라이온스클럽과 함께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용성고, 전북 유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AI 기반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 국비 포함 총 100억원 투입

남원시가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 남원용성고등학교(가칭 케이팍고등학교)가 전북도 내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이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지역 정착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남원시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교육발전특구 사업, 그리고 농생명산업특구 등의 전략이 학교의 교육 혁신과 완벽하게 연계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용성고는 새롭게 개편되는 △AI

팍과 △AI팍테크와 △AI팍카페과를 중심으로 첨단 스마트 농업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AI 역량을 갖춘 스마트팍 재배 운용, 환경제어에 데이터 분석, 농업용 드론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운용 및 정비, 그린 바리스타 등 현장에서 즉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낸다.

특히 기존의 수동적인 단순 실습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의 생산 및 창업 중심 교육을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동되는 특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KT, 팍한농, ㈜아름, ㈜티에스팍 등의 선도 기업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북폴리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업 연계 프로젝트와 맞춤형 현장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남원시는 졸업생들이 지역 내

년보급자리사업, 취업 장려금 지원, 청년농 스마트팍 창업지원 등 시의 핵심 정주 정책을 연계해 '양성-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남원만의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남원용성고는 향후 5년간 교육부로부터 최대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도교육청 45억원, 시비 10억원의 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원의 대규모 대응 투자가 이뤄진다. 확보된 예산은 AI 기반 스마트 농업 첨단 교육시설 구축과 산학연계 직무 프로그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유희태 남원시장은 "우리 청년들이 남원에서 최고 수준의 AI 농업 기술을 배우고, 창업과 취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AI 입은 정책 혁신" 챌린지100℃ 발대

6급 이하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우수 정책 군정 반영 계획

완주군이 9일 정책연구모임 '완주 챌린지 100℃'의 발대식을 갖고 주민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완주 챌린지 100℃'는 군의 창의적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6급 이하 공무원 30명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모임이다.

올해 '챌린지 100℃'는 정책을 기획하는 모든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딥러

러닝, 이미지 생성 등)를 전면 도입한다. 각 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료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설득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정책 기획 능력 향상을 물론, 적극 행정 문화 확산과 조직혁신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공동 연구(워크숍), 선진지 견학, 중점 과제 담당 부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팀별 발굴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생성

형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정책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오는 8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각 팀의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정책 현장에 접목하는 이번 도전이 단순한 아이디어 발굴을 넘어, 우리 조직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워크숍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지난 8일 공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추진했다.

이날 공단은 '모두가 누리는 공공복지, 누구나 꿈꾸는 미래행복도시'라는 임무와 '지속 가능한 복지와 편의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스마트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이사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개최된 중장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체계를 점검하고, 공단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목표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공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수립된 의견을 중장기 경영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미션·비전 선포와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함께 실현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장수, 지역 성장동력 확보

임실군, 미래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임실군-원광대 맞선

임실군이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 4일 오후 반려누리에서 일반인 및 교고·대학생 등 수강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견미용사(3급) 자격증 교육 과정'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와의 산학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모집 접수 시작과 동시에 보내 반려인과 예비 반려견미용사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며, 선착순 조기 마감되는 등 시작 전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내달 10일까지 6

주간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견체모형과 미용 도구 세트 등 교구도 무상으로 지원된다.

임실군과 원광대학교는 이번 반려견미용사 과정에 이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교육과 동물교감 지도사, 반려동물장례 지도사 과정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과 청년들에게 전문 직업교육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문화·산업·관광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 총력

기업 근로환경 개선
교통비 지원 나서

장수군로컬JOB센터(센터장 주성덕)가 '2026년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내달 10일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화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환경 개선사업 △교통비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기업 6개소와 재직자 56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지역 내 기업의 기숙사, 화장실, 휴게공간 등 근로환경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내 3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수군로컬

JOB센터를 통해 신규 채용이 이뤄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업에는 최대 1,200만 원의 시설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교통비 장려금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5개월간 교통비를 지원한다.

특히 편도 출퇴근 거리가 5km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만 34세 이하 제조·가공업체 재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주성덕 센터장은 "채용 지원부터 근로환경 개선, 장기근속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사)무주군자원봉사사센터가 이동급식차량을 활용한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 운영에 본격 나섰다 <사진=무주군>

무주군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 운영

7월까지 6개읍·면 순회

(사)무주군자원봉사사센터(이사장 이강우)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이동급식차량을 활용한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 운영에 본격 나섰다.

무주군자원봉사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소장 양해연)가 후원하는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소외감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읍면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점심

과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단순한 무료급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자생봉사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따뜻한 점심 식사와 함께 지역사회단체 중심의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소외감을 덜어 주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무주군,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주읍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민간 주택(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 대출이자(25.12.~26.5월분)를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및 만 18~39세 미혼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는 5세대, 청년은 4세대 등 총 9세대를 모집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생계·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계약자 본인이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무주군청 2층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으로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며,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마당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청년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배정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울

해부터는 청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젊은 층이 무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정책 발굴과 실행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의 활력과 인구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총사업비 30억 원의 청년안정기금을 기반으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94가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주택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유아미술 프로그램 '아트앤하트' 진행

유아들 창의력·사회성 향상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가 6월 한달간 매주 월요일 4회기에 걸쳐 지역 유아들의 창의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유아미술 프로그램 '아트앤하트'를 운영한다.

'아트앤하트'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창의적 표현력과 감수

성, 정서 안정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표현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매우 우수'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과 달성

장수군은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과 '제3차 장수군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 2025년도 추진 실적 점검 결과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서는 총 6,432t CO₂eq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2025년 누적 감축목표량인 5,620t CO₂eq대비 114%에 해당하는 성과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CO₂eq는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한 단위이다.

부문별 감축효과를 살펴보면 건물 부문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흡수원 부문 34.1%, 농축수산 부문 9.8% 순으로 나타났다.

추진과제 달성도를 보면 총 22개 과제 가운데 13개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으며, 6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지연 과제는 1건에 그쳤고, 2개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에서는 물관리, 산림·생태계, 재난·재해, 농축업, 건강 등 5개 부문 24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준비단계 28.3점, 이행단계 39.3점, 성과부문 25점, 가점 1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93.6점을 기록해 최고 수준인 '매우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장수군은 물관리 3개 사업, 산림·생태계 6개 사업, 재난·재해 3개 사업, 농축업 5개 사업, 건강 7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7,246건 5억 9천만원 부과

임실군은 지난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7,246건(5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한편 과세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이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계북면지사협, 여름철 냉방용품 지원

장수군 계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재수)는 저소득층과 독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냉방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와 독거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선풍기 등 냉방용품이 없거나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사전에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선풍기 5대를 전달했다.

선풍기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사용하던 선풍기가 오래돼 바람이 약하고 불편했는데 새 선풍기를 지원받아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협의체는 이번 냉방용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7월에는 '복합이 영양상계당 지원사업' 등 2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수 민간위원장은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층과 독거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신평면지사협 정기회의 복지사업 점검-논의

임실군 신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충의, 손완진)는 지난 8일 신평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보건의로원에서 실시했으며, 제6기 신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 및 협의체 구성하고, 또한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마을특화사업(따뜻한 식사 한 끼)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신평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추석 명절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아 추석 명절 꾸러미 전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연말에도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완진 민간위원장은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작은 실천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

진안군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4개소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군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각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선택법과 올바른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촌스런 마을여행 '찐안 하루 팸투어'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찐안(안) 하루 팸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찐안(안) 하루 팸투어'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이 아니라 청정진안고원의 자연과 사람, 마을의 삶을 직접 경험하며 천천히 머물고 쉬어가자는 농촌여행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시골밥상, 마을 탐방을 통해 진안의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된다.

도시에 '호캉스'가 있다면 진안에는 '촌캉스'가 있다. 화려한 관광시설 대신 따뜻한 마을 인심이 있고, 복잡한

일정 대신 자연이 주는 여유가 있다. 진안고원의 바람을 맞으며 걷고, 마을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건강한 시골밥상 맛보는 시간은 그 자체로 특별한 여행이 된다.

지난 5월 31일 첫 번째 팸투어는 동향면 봉곡마을에서 진행됐다. 이번 팸투어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과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은 연중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별 여행 정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 황산면, 다육식물 농가 찾아 농촌 일손돕기 추진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직원들이 9일 일손이 부족한 다육식물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농작업에 차질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수미 황산면장을 비롯한 직원 9여 명은 다육식물 분갈이, 화분정리, 과수원 환경정비 작업 등을 진행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주는 “농번기라 손이 많이 가는 다육식물 관리에 걱정이 많았는데, 황산면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일손돕기를 지원해 줘서 큰 시름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 봉동읍 봉사단체 연합, 취약계층 환경개선

6개 봉사단체 합심 방충망·싱크대 설치 등

완주군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국인숙, 윤당호) 회원들이 장애와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봉동읍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고 호룡불봉사회, 봉동읍 지역사회사랑봉사단, 봉동여성의용소방대, 완주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사랑드리봉사회 등 지역사회 내 여러 봉사단체가 뜻을 모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호룡불봉사회의 지원으로 장판과 방충망 교체를 진행하고 싱크대를 설치했으며, 봉동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집 마당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정리했다.

완주군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내부의 집을 정리하고 봉동읍 지역 사랑봉사단과 사랑드리봉사회는 대형폐기물과 가구를 옮기며 손을 다졌다.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틀간 봉사단체들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의 전반을 함께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완주군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장애와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다 <사진=완주군>



부안 행안면, 관내 농가서 양파·마늘 수확작업 도와

부안군 행안면은 본격적인 양파·마늘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9일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행안면사무소 직원 8명이 참여해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농가의 양파 및 마늘 수확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양파와 마늘을 수확하고 운반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안면장은 “농촌의 일손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전주·완주 5개 어린이집, 3년째 나눔 실천

환경도 지키고 이웃도 돕고

전주와 완주지역 5개 어린이집이 환경보호 실천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3년째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늘푸른어린이집과 데시앙우리아린이집, 세안어린이집, 아이월드어린이집, 아침해어린이집 등 전주·완주지역 5개 어린이집은 9일 전주시 복지재단에 기부금 261만 원을 전

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5개 어린이집이 연합해 지난달 1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놀이마당에서 실시한 ‘건GO! 줌GO! 놀GO! 그린챌린지’ 행사의 참가비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됐다.

윤광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기부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남원 지리산 마트타운 김선길 대표, 두유 60박스 기탁

남원 지리산 마트타운 김선길 대표는 지난 8일 인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유 60상자(한가액 120만 원)를 기탁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구를 위하여 2026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된 물품은 홀몸 어르신 60가구의 안부와 영양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지리산 마트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길 대표는 인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대표는 “살림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두유가 간편한 영양 보충식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정일 위원장은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영양을 챙겨 지역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고창군 수협, 취약계층 위한 백미 전달

고창군 수협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고창군 수협은 최근 심원면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 30포를 기탁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심원면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창군 수협 관계자는 “지역사

회와 상생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일상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현 심원면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고창군 수협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백미는 꼭 필요한 가정에 정성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시 사회복지과, 총무공무원 총훈탑 환경 정비

정읍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7일 정읍시 순국선열의 위패를 모신 총무공원을 찾아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는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잊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참여한 직원들은 총무계단을 거쳐 총훈탑과 위패 봉안소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꼼꼼하게 거뒀다. /정읍=김정인 기자

아울러 비석의 목은 때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며 쾌적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오미란 사회복지과장은 “호국보훈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6월을 맞아 직접 현장 봉사활동에 나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충 시설 유지와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동산동 '나은청과', 착한가게 가입으로 나눔 동참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명경·심현무)는 9일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한 '나은청과(대표 김선애)'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나은청과는 신선한 제철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한결같은 친절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청과 전문점이다.

김선애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착한가게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명경 동산동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신 나은청과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나눔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생활 속 필요한 안전수칙

화제 안전편



〈一事一言〉



9조 원 축배 뒤에 숨은 경고등, '알맹이'를 채울 시간이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연구원의 뼈아픈 일침

올해 초 전북을 들쭉이게 한 대기업의 초대형 투자 낭보는 가히 역사적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과 전북 일대에 수소, 로봇,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총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북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광활한 부지와 북방 테스트베드라는 강점을 지닌 새만금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그러나 기대감만으로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은 환호 속에 가려진 전북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냉정하게 짚어냈다. 연구원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과 산업진흥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투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은 과거에도 대규모 생산시설 유치에 성공했지만, 기획과 연구, 설계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수도권에 남고 지역은 생산기지 역할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를 경험해 왔다. 현대차의 9조 원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국책과제를 기획하며 산업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기능이 지역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 새만금은 또 하나의 생산기지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해법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이 아니라 현대차의 AI·로봇·수소 산업 투자와 연계한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새만금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제조현장의 AI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관련 기관의 전북 이전 또는 기능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민간기업의 투자와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이 결합할 때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로봇과 수소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북이 보유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 인프라와 현대차의 피지컬 AI 기술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등의 연구기획 역할과 연결한다면 연구개발에서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부안 수전해 산업 기반 역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같은 국가 에너지 R&D 전문 기관과의 연계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북도와 정치권의 논리도 진화해야 한다. 과거의 공공기관 유치 논리가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국가 전략산업 육

성과 민간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과 산업지원 기능을 전북에 함께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결국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 대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하며, 도내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융합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9조 원의 투자는 전북에 주어진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지역만이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민간의 대규모 투자 위에 공공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라는 단단한 토대를 쌓을 때 비로소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금 전북이 집중해야 할 것은 투자 규모에 취하는 일이 아니라 그 투자에 알맹이를 채우는 일이다.

사설

새만금, 이제는 '흰 꼬끼리'가 아니라 '실행력'을 증명할 때다

오랫동안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기대와 함께 '흰 꼬끼리'라는 오명도 함께 짊어져 왔다.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개발 속도는 더뎠고,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민간 자본이 새만금을 향하고 있다. 새만금이 더 이상 실패와 지연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철한 준비다. 투자 협약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화려한 투자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새만금이 진정으로 '흰 꼬끼리'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기업의 투자 발표가 아니라 공장

건설, 연구개발센터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전북은 생산기지에 머무는 과거의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 공장만 들어서 있는 것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연구개발 기관과 산업지원 기능, 전문 인재 양성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현대차 투자와 연계된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은 지금 역사적인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기회는 저절로 성공이 되지 않는다. 행정의 실행력, 정치권의 협력,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연계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새만금이 진정으로 '흰 꼬끼리'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기업의 투자 발표가 아니라 공장

독자 투고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약물운전'도 중대 처벌됩니다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거나,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뒤 차를 운행하는 일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잘못을 넘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흔히 '약물운전'이라고 하면 마약류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감기약, 알레르기 약, 수면제 등 일상적인 의약품까지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약물운전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졸피뎀, 옥시코돈, 디아제팜 등 법률상 지정된 481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졸음, 인지 저하, 반응속도 감소를 일으킨다. 처방약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약물운전 및 측정거부는 징역 5년,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상습 약물운전은 징역 2~6년, 벌금 1,000만~3,000만원과 운전면허취소, 상습측정거부는 징역 1~6년, 벌금 500만~3,000만원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단속 절차는 약물운전 의심 증상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운전자의 혈액 등을 관찰하고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정황이 의심될 경우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며,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정황이 확실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혈액·소변을 통해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 만일 거부 시 현행법 체포까지 가능하다. 약물운전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가 상담, 주의 문구 확인, 대안 찾기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2026.4.2. 시행)에 따르면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다. 단순 감기약을 복용하더라도 '지금 내 상태는 정말 안전한가'를 생각하고 약봉투·용기를 확인하여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약 복용 후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서로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된다.

익산경찰서 활동파출소 순경 정성현

오늘의시

새벽 편지 / 광재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간에
아름다운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편지를 쓰기 위하여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흔들만 깜박이는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의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씨꾸', '낙타풀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063)282-9600~3

김제시, 빈집에 온기 입히다!

홍물에서 선물로, 빈집의 변신

도시 미관 개선·주거 복지 향상 두 토끼 잡다

오랜 시간 마을의 골칫거리로 방치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를 낳았던 '빈집'들이 김제시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 아래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다.

시는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하고 철거와 재생을 병행하는 '빈집에 온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무는 물리적 정비를 넘어 방치된 공간에 공익적 가치를 입혀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공간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먼저, 시는 주거환경의 저해 요소였던 빈집들을 전수조사해 상태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시행한다. 붕괴 위험이 큰 폐가는 신속히 철거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빈집은 주차장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등 마을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홍물'에서 '선물'로 거듭나는 빈집의 화려한 변신은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방치된 빈집, 도시의 활력을 잡아먹는 '그늘'에서 '범죄의 온상'까지]

- 방치된 빈집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 초월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김제시 곳곳에 주인 잃은 빈집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이제 지역사회의 심각한 저해 요소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민의 안전이다. 노후화된 목조 및 조적조 가옥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담장이 무너지거나 지붕 기와가 추락하는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공포가 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의 빈집은 초기 진압을 방해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게다가 위생 환경 역시 심각하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해충 번식, 악취 발생은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저질러 훼손한다.

더 나아가 치안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은 청소년의 일탈 장소나 범죄자의 은신처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

이미지의 실추 또한 치명적이다. 김제의 관문이나 주요 도로변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가는 방문객들에게 '쇠퇴한 도시'라는 강렬한 부정적 인상을 남긴다. 이는 정주 의욕을 꺾고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기폭제가 된다.

김제시는 이러한 빈집 문제를 개인의 재산권을 넘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풀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규정했다.

[‘철거를 넘어 재생으로’ 김제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 주요 사업 현황 및 맞춤형 정비 방안의 이행 내역

시는 관내 방치된 빈집들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에 따른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지역 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 등 140여 동을 대상으로 철거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했다. 또한 도로변에 방치되었던 건축물들을 정비하여 해당부지를 마을 뒷밭이나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관리하는 등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희망하우스' 및 '촌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을 수리하여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임대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민간의 주택 개량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 사업도 병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주거 행정 추진 과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와 심사가 이뤄졌다.

[‘지속 가능한 김제’를 향한 여정, 빈집에서 희망을 찾다]

- 인구 증가와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미래 비전

시가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의 종착지는 명확하다. 바로 '살고 싶은 김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시의 적극적인 빈집 정책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강력한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첫째는 도시 브랜드 가치의 격상이다. 주요 도로변과 도심 내 흉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깨끗한 경관과 공공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이는 김제시 전체의 미관을 밝게 조성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 방문객들에게 '관리되는 도시', '활력 있는 도시'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둘째는 실질적인 정주 인구 유입의 토대 마련이다. 희망하우스와 촌집 리모델링 사업은 주



철거 전

철거 후



철거 전

철거 후

공동체 회복이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정비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빈집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사후 관리 주체로 참여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결속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함께 가꾸는 뒷밭과 텃밭은 이웃 간 소통의 장이 되어 단절되었던 마을 공동체를 다시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김제시의 빈집 정책은 단순한 공간의 재구성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따뜻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제 빈집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김제의 미래를 새로 쓰고 인구성장을 견인할 핵심 자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다시 태어난 공간

RE: BORN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